

국경없는 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WINTER 2016 Vol.3 No.3



2016
올해의 사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역삼동 677-18) 조이타워 5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www.msf.or.kr
 facebook.com/msfkorea
 @msfkorea
 @msfkorea
 youtube.com/msfkorea
 @국경없는의사회
 blog.naver.com/msfkr

이사회 제레미 보딘
브루노 조콤
김나연
김남렬
이선영
이효민

사무총장 티에리 코펜스
하신혜

인사팀 줄리 페통
김은선

재무/사무팀 김알렉시
김정민
신은경
조혜원

후원개발팀 윤지현
김지영
김희로
오민정
정유정

홍보팀 윤주웅
김미정
이주사랑
정태은
최정혜

디자인 slowalk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자 여러분께,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인도주의 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가능했던 주요 활동들의 상징적인 사진들을 소개합니다.

선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세 가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예멘과 시리아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병원 21곳이 38차례나 공중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병원은 파괴되고 의료진과 환자들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에 갇힌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병원이 폭격의 목표물이 되자, 사람들은 구명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위험한 곳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는 분쟁 상황으로 1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44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구호 지원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혼란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중해를 건너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4,700명에 달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서는 3척의 구조선을 이용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위험하게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장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매일 애쓰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팀원들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감사합니다.
티에리 코펜스

Cover Photo © Joosarang Lee / MSF

시리아 난민을 위한 요르단 람사 병원에서 아동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선영 간호사

나이지리아의 식량 위기와 차드 호 주변 국가들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폭력으로 인해 차드 호 주변 국가들 - 나이지리아, 니제르, 카메룬, 차드 - 에서 260만 명이 살던 집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 위기가 발생해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아동 사망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는 어머니. 아이는 합병증을 동반한 홍역 증상이 나타나 격리 병동에 입원했다. 영양실조를 앓는 아동은 다른 질병에도 취약하다.



2 만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미나는 입원치료식센터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3 마이두구리에서 영양실조 치료를 받고 있는 3개월 된 쌍둥이 자매.

4 매월 받아야 하는 계절성 말라리아 화학예방 요법에 따라 복용 받고 있는 아동.



6 카메룬 쿠세리에는 4만 명에 가까운 실항민들이 머물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쿠세리에서 이동치료식센터를 포함해 피난민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3곳의 진료소를 지원하고 있다.



7 니제르 디파 지역도 보코하람 공격의 영향을 받아 30만 명의 실항민이 생겨났다. 22살의 람보 다우아는 실사와 결막염을 앓고 있는 한 살배기 딸의 치료를 위해 진료소를 찾았다.

5 매일 아침, 실향민 캠프에서는 물을 받기 위해 분주한 풍경이 벌어진다. 물을 확보하는 것은 실향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 Sylvain Cherkouki / COSMOS



© Sylvain Cherkouki / Cosmos for MSF



© Sylvain Cherkouki / COSMOS

8 국경없는의사회는 5세 미만 아동을 위해 예방접종과 구충제 및 비타민A를, 부모들에게는 비누, 모기장 등 구호품을 보급했다. 이날 활동으로, 하루 만에 4천 명의 아동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예멘 내전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예멘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군사적 표적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는 무차별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을 받는 병원들은 네 차례 공격을 받았고, 결국 예멘 북부의 사다와 하자 지역 병원 6곳에서 직원들을 대피시켜 지원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타이즈, 알 달리, 아덴 등지에서 구명 의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지난 8월 공습을 받은 아브스 병원 응급실에 남아있는 의약품을 챙기고 있는 병원 스태프. 아브스 병원은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하자 서쪽 지역의 주요 의료 시설이었다.

2 알 살람 진료소에서 부상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



3 중증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생후 8개월의 이브라힘이 알 타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 영양실조센터 입원이다.



4 집에 떨어진 공중폭격으로 인해 팔과 다리에 파편이 박힌 12살 알리는 치료를 위해 알 살람 병원을 찾았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5년이 훌쩍 넘어섰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알레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은 포위되어 필수 의약품을 비롯한 구호 물자가 전달될 수 없고, 표적 공격으로 의료 시설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헌신된 소수의 현지 의료 인력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3 시리아 난민 아동이 비공식 난민 캠프에서 저녁으로 먹을 야채를 준비하고 있는 할머니 옆에 앉아있다. 요르단이 6월 시리아와 국경을 폐쇄한 이후로 7만 5천 명이 베를 사막 지역에 고립되어 식량 및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람사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현 활동가(우).



© MSF



© Joosarang Lee / MSF



© HH



© KARAM ALMASRI / MSF

4 알레포의 한 병원. 의사 1명이 사망하고 수 명의 간호사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 4월 공습 이후로 건물에 모래주머니를 덧댔다.

유럽 난민

1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 공동팀이 나무 보트에서 난민/이주민을 옮겨 태우고 있다. 10월 3일, 하루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세 척의 구조선을 통해 2천 명을 구조했다.



© Johannes Moths

올해에만 지중해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은 4,700명이 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조선 3척을 통해 지중해에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구조선을 통해 1만 9천 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지중해에서 구조된 사람 7명 중 1명은 국경없는의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루트를 제공하는 것만이 해상에서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탈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프랑스 등지에서 난민과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Guillaume Binet / MYOP

4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국경 지역, 이도메니에서 1,200명의 난민들이 국경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2 국경없는의사회 조산사가 구조선 부르봉 아르고스에 탑승한 여성을 진료하고 있다.

3 구조선에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탈리아에 배가 정박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5 올해 3월부터 난민/이주민들이 지나가는 발칸 국가들의 국경이 막히자 피레우스 항구는 5천 명 이상이 머무는 난민촌이 되었다.

아이티

2016년 10월 4일, 허리케인 매슈가 아이티 남서부를 휩쓸었습니다. 허리케인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드, 그랑당스, 니프 지역 주민들은 거처, 식량, 식수가 부족한 가운데, 일부 외진 마을은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부상환자와 콜레라 의심 환자 치료, 감염병 감시, 식수 위생, 이동 진료소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 허리케인 매슈가 강타해 부서진 집에서 서 있는 소녀와 가족.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로쉬아바토 지역에는 많은 집들이 부서졌다.
- 2 이동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환자. 포르타피망 북부 산에 위치한 이 마을은 허리케인 매슈가 강타한 이후 헬리콥터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 3 국경없는의사회 팀이 포르타피망 지역에서 당나귀를 이용해 강을 건너 이동진료 활동을 위한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



생명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



생명의 밴드 캠페인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의 분쟁, 재난, 의료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국경이 없다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밴드'를 선물해주세요.
후원으로 참여해주시면, 생명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
'생명의 밴드'를 드립니다. 국경이 없어지는 순간 생명은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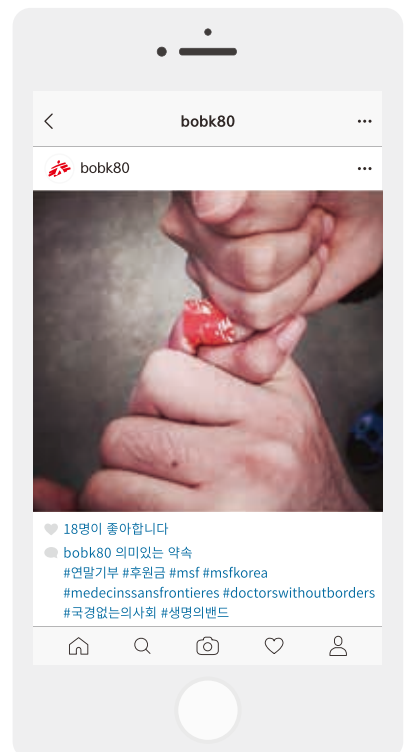
'생명의 밴드'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



하나. 생명의 밴드 캠페인에 후원한다. (msf.or.kr/life-bandaid)

둘. 생명의 밴드 착용 사진을 #국경없는의사회 #생명의밴드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린다. (함께 캠페인에 참여할 친구 태깅은 기본!)

*생명의 밴드는 위 링크를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정기 후원자 및 3만원 이상 일시 후원자분들께 1인 1세트 제공됩니다.



특별한 날을 국경 너머에 선물해주세요

일상의 행복한 순간, 특별한 날, 지구촌 어딘가에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이웃을 떠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세상을 치료합니다.

66 아기 백일을 맞아서 이름처럼 널리 베푸는 일에 늘 마음을 쏟는 아이가 되길 바라며 백일기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남은 백일잔치보다는 기부로써 아이의 백일이 기억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지난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주에 감사하는 마음에 기부처를 찾다가 국경없는의사회 TV 광고를 보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지금처럼 국경없는의사회만의 신념을 잃지 않고 활동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99

- 현호준 아기 후원자 부모님



현호준 아기

66 저 자신에게 주는 생일선물로 생일기념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는 한국에서 비교적 편하게 먹을 걱정이나 입을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려고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영상을 보여주곤 했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99

- 이하나 후원자님

66 저는 간호사로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우고 있는데요. 그중 1번이었던 의료봉사를 실천하고자 국내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지원의 최남단에서 영양실조, 전염병 등과 사투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제 생일을 맞아 반성과 감사함의 의미로 생일기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제 마음만은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크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99

- 이아름 후원자님

어떠한 기념 기부들이 있나요?



참여하기

www.msf.or.kr/special

문의하기

TEL 02-3703-3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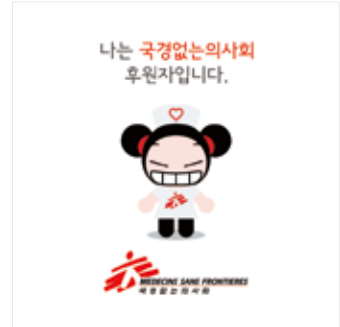
EMAIL minjung.oh@seoul.msf.org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

 ×  캐릭터 탄생!

국경없는의사회와 뿌까가 만나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를 떠올리게
하는 귀여운 뿌까 캐릭터들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 주변에
국경없는의사회를 널리 알려주세요.

 **프로필 사진 다운로드 받기**
bit.ly/msf_pucca



의료텐트 저금통 이벤트

올해 4월부터 국경없는의사회 거리 캠페인을 통해 나눠드린
의료텐트 저금통에 모으신 동전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다이어리 등 작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17년 2월 28일까지


참여 방법 아래 후원계좌로 송금 후, 후원자 센터로 확인 전화하기
후원센터 02-3703-3555

후원계좌 신한 140-009-508856 | 농협 301-0097-1045-31



← → ↻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해부터 기부금 영수증 우편 발송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비용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 이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1 **발급 전 확인사항**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donate.msf.or.kr)에 로그인하여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2 **기부금 영수증 발송 신청** 별도 발송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support@seoul.msf.org) 또는 전화(02-3703-3555)로 신청



© Rogier Jaarsma

10만 명 이상이 머물고 있는 남수단 벤티우 민간인 보호구역 내 유일한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아동.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의사와 기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지원에는 정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 원칙들은 인종, 종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자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